

## 성경 D & N

### 6.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Q: 계시록 3장, 22장의 생명책, 목사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안 행위 책과 생명책이 있으며 사람의 이름이 일단 행위 책에 기록되었다가 구원받으면 생명책으로 옮겨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배웠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달라서 질문합니다.

A: 6년 전에 계시록 강해, 사데 교회를 다루며 계3:5의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 여기의 지워버리는 일이 구원 상실인가?

그 뒤 킵바이블에 '생명책' 글을 썼지만 역시 전체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 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분의 질문의 핵심은 언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혹은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구원이 취소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저기 찾아보며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팀 라헤이(Tim LaHaye) 목사님 등이 설명해 놓은 것이 가장 유익한 해석

-----  
1. 생명책(book of life)을 살펴보자.

구약에는 생명책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더러 있다.

다윗의 시편, 그들(사악한 자들)을 산 자들의 책(book of the living)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시69:28).

이 책은 하나님의 책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32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 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33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출32:32-33). 구원상실?

이 책은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여 생명을 부여하신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몸이 모태에서 형성되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

다윗의 시편,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시139:16).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 자(출32:33), 즉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지 못한 자

구원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분 면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이 완전히 제거된다.

2. 이기지 못한 자(계3:5), 여기서 '이기는 자'는 행위를 많이 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즉 모든 성도를 말한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5:4).

3. 성경 말씀을 고의로 변개한 자(계22:19), 누가 감히 성경을 고치는가? 불신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  
구원받을 때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리고 그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 있는 한 신자든 불신자든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 즉 불신자와 성경 변경자 같은 죄인들의 이름은 거기서 지워진다.

-----  
한편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 책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이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계13:8).

여기의 어린양은 물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예수님을 말한다(요1:29).

'어린양의 생명책'에는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일단 이름이 오르면, 즉 구원받으면 어린양께서 끝까지 그를 구원하실 수 있으므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없다.

침송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신자, 그들의 이름은 결코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증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7:25).

그러므로 '생명책'과 '어린양의 생명책'은 두 개의 다른 책으로 생각된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21:27).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그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결코 기록되지 않는다.

----- 결론 -----

비록 구약 시대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히 이 땅에서 이름이 있었지만 죽은 뒤에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른다. 반면에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도 비슷한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 당하려 하느냐?

여기의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에게 알려진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를 아시지만(생명책으로), 구원받아야 비로소 그를 어린양의 생명책의 이름으로 아신다. 갈4:9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말한다. 즉 '어린양의 생명책'의 이름으로 는 모르신다는 것이다.

----- 행위 책 -----

계20:12, 불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단7:10, 천년왕국 이후의 심판 때의 책들)

분명히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 행위는 보상에 관한 것이다. 불신자, 신자(계22:12)

그러나 행위 책에 기록되었다가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일은 없다. 자칫 잘못하면 행위 구원

----- 결론 -----

1.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는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
2.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3.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어린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되지 않는다.
4. 행위 책이 있지만 사람의 이름이 구원받을 때 행위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지 않는다.